

우리 가족을 살리는, 마음의 소리

하트 리듬 희망 장려상

남 윤 영

그 해가 다 지나가기 전, 우리 가족에게는 부정맥이라는 낯선 증상이 찾아왔다.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가족에게 찾아왔던 부정맥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한동안 마음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3년 전 여름, 나와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은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던 아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한 날이었다. 진료 예약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집을 나서는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아이의 검진 때문에, 긴장이 되나 봐.’

잠시 후 운전을 하던 남편에게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사실은 밤새도록 몸이 이상해서 잠도 설쳤어.”

남편은 지난밤 잠자리에 들 때부터 가슴이 덜컹거려서 매우 불쾌했다고 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차 안에서 몸이 덜컹덜컹거릴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도대체 남편의 몸이 왜 그러는 것일까? 가슴이 덜컹거린다고?’

그때 마침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 떠올랐다. 센서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맥박을 체크해 주는 것이었는데, 가끔 가족들끼리 재미 삼아 센서에 손가락을 대보곤 했던 게 생각났던 것이다. 나는 신호를 대기하느라 차가 잠깐 멈춰선 사이에 재빠르게 스마트폰 센서 위에 남편 손가락을 얹어 보았다.

‘뚜-뚜, 뚜, 뚜, 뚜-뚜’

스마트폰에서 체크되는 남편의 맥박이 이상했다. 맥박이 뭔지도 모르는 나였지만, 남편의 맥박이 일정하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지만, 진료를 앞둔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애써 초조한 마음을 감췄다.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병원에 도착한 우리는 서로 길을 달리해야만 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병원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본원에 있는 응급실을 향했다.

‘남편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이의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의 상태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답답해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 갔다. 남편의 상태가 궁금해서 잠깐이라도 응급실에 다녀오려고 생각도 해보았다. 어린이병원과 응급실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검사를 받으며 힘겨워하는 아이를 떼어두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이의 검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나는 남편이 내 가까이 오자마자 급하게 입을 열었다.

“왜 그런 거래?”

초췌해진 남편이 대답했다.

“부정맥이래.”

나는 부정맥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그런 나에게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천천히 말해 주었다.

응급실에서 남편은, 스마트폰 센서에서 맥박이 불규칙하게 잡혔던 것과 함께 가슴이 덜컹거리고 답답한 증상을 호소했다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심전도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검사를 받자마자 맥박이 불규칙한 게 바로 체크가 되더라고. 부정맥의 경우,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는 체크가 되지 않아, 다른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나는 바로 부정맥 체크가 되었어.”

그날 남편은 부정맥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받았고, 아이의 검사결과도 양호했다. 그 뒤로 남편은 몇 번 더 병원을 내원하여 상태를 관찰하였다.

한편 남편의 부정맥 증상을 알게 된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어머니, 부정맥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조기수축에 해당한대요. 병원에서 약물치료 받으면서 휴식을 잘 취하면 괜찮아진다고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그게 심장에 이상이 있던 건데, 어떻게 괜찮아지겠어. 아이쿠,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어머니께 아무리 안심을 시켜 드리려고 해도, 어머니의 걱정은 끊이질 않았다. 병원을 다니며 약물치료를 통해 남편의 부정맥 증세가 말끔하게 사라진 다음에도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께서 머리가 핑 돈다며 쓰러진 사건이 발생했다. 아주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곧바로 깨어나시긴 했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에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던 어머니께서는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보셨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어머니께서 두어 번 더 의식을 잃으셨다가 깨어나신 이후였다.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부정맥이 있으셨다.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하고 나서야 밝혀진 어머니의 부정맥은, 심방세동이었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혈전이 만들어져 돌연사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증상이었다. 심장세동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병도 5배나 높아진다고 했다.

어머니가 심방세동을 앓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머릿속에 복잡해지면서, 어머니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의 맥박을 자주 확인해 보았다면, 더 빠르게 부정맥을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더 늦지 않고 심장세동을 발견하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위안을 삼았다.

심방세동이 있는 어머니의 치료는 약물로 하기로 했다. 수술 및 시술로도 심방세동을 치료할 수 있지만, 80대 중반이신 어머니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약물치료를 하기로 한 것이다. 어머니가 드시게 된 약은 항부정맥 약물과 항응고제였다.

심방세동 치료를 위해 약을 드시게 된 어머니께서는 크게 한탄을 하셨다.

“아이쿠, 세상에. 어쩌다 이런 게 내 몸에 찾아와서……. 앞으로 이 많은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고? 약을 먹으면 낫기는 하는 거고?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건데, 뭐 나아지겠어?”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어머니는 느닷없이 나타난 ‘심장세동’ 앞에서 낙담하고 불안해하셨다. 실망하고 초조한 건 가족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연세가 너무 많으신 어머니께서 ‘심장세동’을 잘 이겨내실지, 또 치료는 제대로 될지가 무척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어머니의 치료는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다.

“약을 먹으니까 몸이 한결 편하구나.”

약을 드신 이후로 어머니의 몸과 마음은 나날이 좋아졌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은 점차 사라지고, 불안이 자리 잡았던 곳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부정맥 약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드셨다. 이따금 약을 챙겨드셔야 하는 게 귀찮다고는 하셨지만, 그 덕분에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훨씬 좋아지셨다.

나는 요즘 진심을 담아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

“어머니! 계속 이렇게 건강하셔서 OO이가(우리 아이) 나중에 장가들 때, 결혼식장에도 함께 계셔야 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이구, 무슨, 그 나이 들어서까지…….”

어머니는 손사래부터 치시며 말씀하시지만, 나는 어쩐지 정말로 그런 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심장세동’이라는 부정맥을 발견하여,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 건강해지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가족에게 찾아왔던 부정맥! 부정맥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불안함과 초조함에 잠시 떨어졌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렇지 않다. 만약 우리 가족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맥의 존재를 모르고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으로 아찔하다.

부정맥을 밝혀내어 치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던 불행의 씨앗을 도려낼 수가 있다. 부정맥을 발견해내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숨어 있는 부정맥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모르고 지나칠 뻔한 부정맥을 찾아내고 치료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마음(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마음(심장)의 소리아말로 우리 가족을 살려낼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소리가기 때문이다.

